“세월호 무사 인양, 불보살님께 발원합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 세월호 선수 들기 성공 환영문 발표

지난 7월 29일 세월호 선수(뱃머리) 들기 작업이 성공한 것과 관련,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이에 대한 환영문을 발표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용, 이하 사회노동위)는 7월 29일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선수 들기 공정 및 선체하부에 리프팅 빔 18개 설치 작업에 성공했다고 공식 발표한 직후 이에 대한 환영 의사를 표했다.

사회노동위는 “기상과 기술적 문제 등으로 실패와 연기를 거듭한 끝에 선수들기를 마쳤으니 다행이고 고마운 일”이라며 “무엇보다 9명 미수습자 가족들의 극심한 고통에 한줄기 위안과 희망의 빛을 가져다줬을 것”이라 전했다.

이어 사회노동위는 “앞으로 선미들기, 리프팅빔과 리프팅 프레임 와이어 연결, 세월호의 수중 인양 등 어려운 과정이 남았지만, 세월호가 무사히 인양될 수 있도록 불보살님께 진심으로 발원할 것”이라 약속했다.

한편 사회노동위는 8월 11일 세월호 참사 해역에서 2차 인양기원법회를 봉행한다. 오전 9시 조계사 앞에서 출발할 예정이다. 참가문의 (02)2011-1822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조계종 승려복지, 중앙종무기관도 동참

교역직 국장스님 기본급 10% 승려복지기금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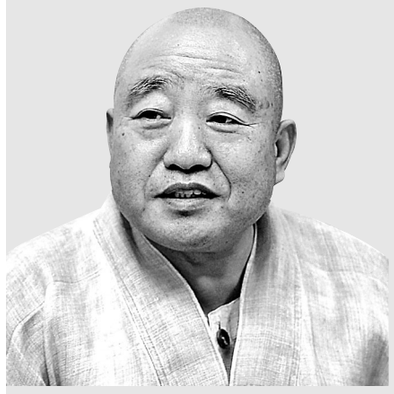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국장스님들이 7월부터 기본급의 10%를 승려복지 후원금으로 납부한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중앙종무기관 국장스님들은 그동안 국장단모임 차원에서 승려복지제도 시행 초기부터 매달 30만원의 후원금을 내고 있었다”며 “7월부터 국장스님들 전원이 월 보시 중 기본급의 10%를 승려복지 후원금으로 납부하기로 했다”고 8월 1일 밝혔다.

승려복지제도는 33대, 34대 총무원 집행부 핵심사업 중 하나로 2011년 4월 승려복지법 제정에 따라 시행됐다. 현재까지 입원진료비와 요양비,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의료복지를 시행 중이며, 내년부터 스님들의 노후준비를 위해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조계종이 2017년부터 지원하는 국민연금보험료는 1인당 월 36,000원을 기준으로 2017년 월 10800원, 2018년 월 18000원, 2019년부터 월 36000원을 지원하게 된다.

조계종은 “이번 국장스님들의 결의로 도반과 선후배스님, 승가의 미래를 위해 승보공양 후원운동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노덕현 기자



출가생활·전문교육 동시에 ‘Uni- 출가’, 미래위한 불사

[인터뷰] 중앙승가대학 총장 원행 스님

“요즘 20대를 보면 취업 등 진로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가히 무한 경쟁 세대라고 할 수 있죠. 이들에게 중앙승가대가 추진하는 4년 단기출가, ‘Uni- 출가’를 권하고 싶습니다.”

조계종립 중앙승가대학 총장 원행 스님<사진>은 8월 4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출가 진흥을 위한 방안으로 ‘4년 단기출가 제도(Uni- 출가)’를 신설해 올해 신입생을 받아 내년 3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앙승가대의 ‘Uni- 출가’는 출가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새로운 시도다. ‘Uni- 출가’는 중앙승가대에서 4년 간 정규대학과정을 이수하면서 출가생활을 경험하고, 졸업 후 구족계를 받거나 사회전문직업인으로 진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계종 기본교육기관 중 하나인 만큼 ‘Uni-출가’를 하는 방법은 일반 대학과는 다르다. 단기출가를 신청한 후 은사를 결정해 행자를 등록하고 행자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Uni-출가’를 마음먹었을 경우 ‘청소년출가특별법’에 의거해 행자 교육이 면제된다. 이후 종단 수계교육에 입교해 5급 승가고시 치룬 후 사미(니)계를 수지하면 중앙승가대에 입학할 수 있다.

내년 3월 입학을 위해서는 20대 이상은 8월 29일까지 등록을 해야 하며, 현 고등학교 3학년은 12월까지 등록하면 된다.

“‘Uni-출가’에 현재까지 지원한 사람은 일반인 5명입니다. 고등학생 지원자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지난 7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중앙승가대에서 진행하는 템플스테이인 ‘UNI-stay’를 진행했는데 반응이 좋았습니다. 참가 학생들이 출가에 대한 인식을 변화하는 것을 봤습니다. 종립학교를 대상으로 ‘Uni-출가’를 홍보하는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중앙승가대에 입학하면 여러 혜택이 주워진다. 등록금 및 4년 학비, 기숙사비는 전액 면제다. 이는 Uni-출가자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된다.

출가 수행자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라 불교 교육만을 배울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종단 표준교육과정에 맞춰 현대적인 교육 커리큘럼이 구성돼 있다. 어학의 경우 영어는 4년 내내 수업이 있으며, 제2 외국어로는 일본어와 중국어를 수강할 수 있다. 본인 능력에 따라 대만 불광산사 5개 대학, 일본 교토 불교대학에서 교환학생으로 공부하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조계종 기본교육기관 최초로
4년 단기출가 제도 신설·운영

졸업 시 복지사·학예사 취득
출가·직업인, 진로 선택 가능

종무원·복지사 등 메리트 많아
출가 감소 시대 新 대안 ‘주목’

또한 교육부가 인정한 4년제 정규대학인만큼 전공별로 관련 학예사, 사회복지사 2급, 상담심리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Uni-출가’의 특징은 4년 간 경험을 토대로 스스로 구족계 수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미(니)로서 출가를 경험하고 출가 수행자로서의 삶을 선택할지 전문직업인이 될 지를 선택하면 된다.

전문직업인으로서도 여러 진로 선택이 가능하다. 중앙승가대의 경우 국방부 지정 군종사관 후보생 지원대학이기 때문에 군승 및 학사장교로 군복무를 대체하거나 군인으로서 진출이 가능하다. 또한 불교계 복지시설을 비롯해 중앙종무기관 및 사찰 종무원, 박물관 학예사 등으로 취업할 수 있다.

원행 스님은 4년 단기출가 제도인 ‘Uni-출가’가 출가자 감소 시대의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했다. 특히 환속을 죄처럼 생각하는 현재 출가 문화에도 변화를 줄 수 있음을 강조했다.

“대만 불광산사의 경우 8년 단기 출가제도가 있습니다. 미얀마 등 남방불교에는 출가를 경험케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Uni-출가’는 한국불교 출가문화의 변화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4년 단기출가 후 수행자로서의 삶을 살면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불교 전문인재를 양성할 수 있습니다. ‘Uni-출가’는 곧 미래를 위한 불사입니다.”

(031)980-7777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폐사지 복원에 만전 기해달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8월 2일 삼척 도계읍 흥전리사지 발굴현장을 방문해 복원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당부했다. 스님은 “사찰의 경우 전란이나 천재지변 등을 겪으며 법등이 끊어진 곳이 적지 않지만, 이곳을 보존하고 계승하는 것은 불제자들의 역할”이라며 “폐사지 발굴유물 보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법령 개정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흥전리사지는 통일신라시대 창건해 고려시대 전기에 폐사된 사찰로, 국통(國統)이 주석했던 곳으로 추정된다. 2014년부터 불교문화재연구소가 발굴하고 있는 곳이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조계종 선암사 패소 대응, 시작부터 ‘삐그덕’

선암사특위 2일, 첫 회의서 자료미비 지적 나와

지난달 14일 순천 선암사의 소유권이 태고종에 있다는 법원 판결 이후 조계종 중앙종회 선암사정상화를위한특별위원회(이하 선암사특위)가 첫 회의를 열었지만 회의자료 미비로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다.

선암사 특위는 8월 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서 제3차 회의를 열고, 선암사 관련 현황보고와 향후 계획 등의 안건을 다뤘다. 하지만 회의는 구체적인 자료 없이 개요와 소송현황 등 간략한 내용을 정리한 문건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이에 기획실과 사무처, 조계종 선암사 주지 법원 스님에 대한 특위위원스님들의 질책이 이어졌다.

특위위원장 만당 스님은 “특위가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논의조차 할 수 없다”면서 “1심 소송서류 등 특위위원들이 읽어보고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스님은 또 “순천 차 체험관 소송에서 이기고 방심한 게 아닌가 싶다. 태고종은 기존 판례를 검토하고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며 “이 자료의 신뢰성을 지적하고 증거로 채택되지 않도록 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각림 스님은 “태고종 측이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이렇게 안이하게 준비해서는 2심에서 결과가 바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선암사 주지스님이 고생하는 것은 알지만 함께 많은 대화를 나눠야 한다. 특위 역시 너무 방만했다”고 말했다.

이에 법원 스님은 “그간의 부족함을 참회하고, 더욱 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합의에 중점을 뒀던 15대 특위 활동을 바탕으로 접근하다보니 간과한 부분이 있었다. 특위 스님들과 긴밀하게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선암사특위는 대외 유출 금지를 조건으로 1심 관련 자료를 특위위원에게 보내 검토하고, 역대 태고종 소송자료를 준비해 추후에 다시 회의를 하도록 결정했다. 아울러 지역정서를 고려해 접근하면서 소송 외에 태고종과의 합의 및 조정 등의 해결방법도 함께 모색키로 했다. 차기회의는 8월 18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종회 보궐선거 입후보 일감·원범·도성 스님

제16대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에 3명의 스님이 입후보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종훈)는 8월 3일까지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 입후보 접수를 받은 결과 직능대표 사회분야에 일감 스님(불교문화재연구소장)과 원범 스님(부산 선암사 주지), 복지분야에 도성스님(전 불교중앙박물관 사무국장)이 각각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직능대표 사회분야는 지홍 스님이 포교원장으로 선출되면서 사직했으며 포교분야는 정도 스님이 법주사 주지로 선출되면서 사직한 상황이다.

중앙선관위는 8월 5일 입후보자 자격심사를 진행하며, 22일 직능대표선출위서 선출한다.

노덕현 기자

오시는 부처님을 맞이 합시다. 佛子 여러분께 알립니다.

사단법인 한국미륵불교 총회와 문도회에서 유통정법사장지은(流通正法師長之恩) 불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西天과 東土 직계 큰스님 靈位를 모시고 법맥계보편찬을 마치고 사부대중이 문도의 단결과 정진을 위하여 당호 건당식과 대가사 불사 회향을 기념하여 대법회를 봉행하게 되었습니다.

■ 日時 : 佛紀 2560년 8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 | ■ 場所 : 경남 고성군 대가면 양화리 1길 102-15 대무량사 | ■ 문의 : 055)672-4394

三師 證明法師
달제 지운 큰스님 (제주 극락암 조실) / 대허 만선 큰스님 (조계종 경주 보문선원장) / 몽산 관일 큰스님 (조계종 영천 도솔암 조실)

流通正法師長之恩 法會奉行委員

종 정	법련 덕범	문화원장	혜안 행석	제주종무원장	혜봉 행범	진주종무원장	혜안 행석
총무원장	혜봉 행범	중앙포교원장	혜관 행화	제주총무국장	한산 영건	거제종무원장	혜관 행화
종회의장	삼봉 행현	국제문화원장	도명 행원	직할종무원장	남송 덕산	마산종무원장	대비
종회부의장	정철 행철	감찰원장	법타 행춘	서울인천종무원장	만봉 행민	부산서교구종무원장	청련
승정원장	자인 행림	포교사회회장	대명 행경	양산종무원장	원봉 행주	총무원사무총장	남송 덕산
중앙선원장	대성 행문	포교사회부회장	청정. 청량	창원종무원장	벽봉 행수		
호법원장	원봉 행주	일본동경종무원장	만공 행덕	밀양종무원장	대명 행경		

고성 대무량사 도일 행청 / 진동 미륵암 구산 행안 / 산청 약원암 대력 / 마산 천수사 대륜 행선 / 제주 극락암 법해. 금산 / 제주 대산. 성타. 법륜. 덕화 / 산청 종현 / 통영 해암 / 거제 대유 / 일본 보림 / 창원 반야. 일광 / 마산 묘심. 대련. 정심 / 진주 명성 / 마산 성수 행광

外 門徒一同

사단법인 한국미륵불교 流通正法師長之恩 法會奉行委員長 俞禹植 혜봉 행범 합장